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7년도 표어 ◎

“화평케 하시는 그리스도”(엡2:4)

◎ 생활지침 ◎

1.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2. 그리스도의 평화를 나누자
3. 성령이 주시는 화평의 열매를 맺자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감사와 기대로 여는 새 봄

새 봄이다.

각부 교회학교들은 지난 주간에 계절학교를 마치고 풍성한 결실에 감사하면서 새로 오는 계절을 생동감있게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전도회와 다락방들도 이제는 올해 계획한 일들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위한 새로운 모습의 만남들로 활기에 차 있다.

그리고 성도들 모두는 우리가 밤낮으로 간구하는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새 예배당 건축이 이 봄에 어떻게

진전되어 갈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어떻게 응답하실지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기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 무엇보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져야겠다.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시51:10 ~ 12)

3월 행사 게시판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 아담반 개강, 고난주간과 부활절 등

우리 교회는 3월에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다.

◇3·1절 기념주일=오늘은 제 78회 3·1절을 기념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날로 삼는다.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다음 주일(9일) 찬양예배 시 상반기 장학생에게 장학금이 수여된다.

◇육사세례식 주관=해마다 군복음화를 위해 가지는 육군사관학교 세례식을 올해도 22일(토)에 주관한다.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전국의목

회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가 “복음과 상황”이라는 주제로 24일(월) 오후 2시 강남 YMCA 대강당에서 개강한다. 6월 2일까지 10차례에 걸쳐 매주 월요일에 세미나가 진행된다.

◇아담성경공부반 개강=남자 성도들의 신앙성숙을 위한 아담성경공부반이 27일(목) 오전 6시에 개강한다. 10주 동안 매주 목요일에 모이는 이 성경공부의 강사는 이종윤 목사를 비롯한 우리교회 교역자이며 여성도들의 청강도 환영한다고 한다.

◇가족초청전도만찬회=29일(토) 부부 중

에서 한 명만 믿음을 가진 가정에 온전한 가정복음화를 이루도록 마련한 행사이다.

◇부활절=사순절 기간과 고난주간을 경건히 지내고 3월 마지막 주일인 30일은 부활절로 지킨다. 감사예배로 드리는 30일 I·II·III부 예배 시에는 성찬식이 거행되며 부활절 찬양예배와 교회학교별 부활절 행사가 있을 예정이다.

그밖에 매일 가지는 헌신예배와 새가족환영회, 교사대학강좌도 진행된다. 3월의 주요 행사와 일정은 다음과 같다.

일자	행사
2일	3·1절 기념주일
2일	여전도회 헌신예배
9일	상반기 장학금 수여식
22일	육사 세례식 주관
23일	종려주일
23일	교사대학강좌 - 장종철교수 “교사지도력 개발”
24일	11학기 목회자세미나개강 (2시 YMCA 대강당)
24 ~ 29일	고난주간
27일	남성도를 위한 아담반 개강
28일	성 금요일(금식일)
29일	가족초청전도만찬회
30일	부활절(감사예배, 성찬식)
30일	부활절 찬양예배
30일	새가족환영회(찬양예배 시)
31일	목회자신학세미나 강의②

▶ 사순절에

‘골방에서’, ‘은밀히’ 드리는 기도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마6:1 ~ 16).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가운데 구제와 기도생활, 그리고 금식과 절제 등 경건의 생활을 실천할 것을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의 보상 또한 은밀히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

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이다.

사순절 기간에 우리의 기도는 ‘골방에서’ 드러져야 한다.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된 기도를 드러야 함을 말한다. 자신과 가정과 민족에 대한 관심과 집념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한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는 사순절 기간 중에 우리는 결단 꾸미는 경건과 위선의 태도를 버리고 은밀히, 경건히 그리고 진정 참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창세기
강해



“야곱의 축복”

(창세기 48장 12 - 20절)

이종운 목사

야곱의 임종이 다가옴을 알고 요셉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다가갔습니다. 야곱은 그들에게 축복하기 위해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이미 늙어서 시력이 감퇴되었으나(창48:10) 좋은 눈을 가진 보통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야곱의 예언은 두가지로 구분됩니다. 자신의 열 두명의 아들들에 대한 예언은 49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손자 즉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는 것은 48장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흔히 이스라엘을 12지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셉을 제외한 야곱의 열 한명의 아들과 요셉의 두 아들이 족장이 되어 13지파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두 배의 축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의 두 아들이 족장에 포함되었지만 땅을 분배받을 때는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리고 제사장 직분을 받은 레위지파를 제외한 10지파가 각각 땅을 분배받은 것입니다. 레위의 분깃은 하나님입니다.

1.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향한 축복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복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세 족장에게 신실하시고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또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두고 하나님께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시며...”이라고 간구합니다. 이것은 요셉이 야곱에게 이미 요구한 사항입니다(5, 6절). 따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이스라엘 토지를 분배받았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한 축복 중에는 자손의 번창함에 관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본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창12:2, 15:5, 17:2, 22:17). 또한 그것은 아브라함이 죽은 후 이삭에게도 반복된 약속입니다(창26:4). 그리고 그것은 베엘에서 야곱에게도 주신 약속입니다(창28:14).

요셉의 아들들에 대한 이 축복은 이스라엘 장자권을 르우벤에서 요셉에게로 변경시킨 것입니다. 르우벤은 아버지 야곱을 괴롭게 한 자로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요셉이 받은 이

축복은 이삭이 에서가 아닌 야곱에게 준 축복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창27장).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갔으니...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대상5:1-2).

2.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장자에게는 오른손을 얹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장자권이 르우벤에서 요셉에게로 옮겨졌습니다. 르우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므낫세에서 에브라임에게로 옮겨진 것은 아무 언급이 없습니다.

요셉은 축복을 받기 위해 자기 아들들의 손을 잡고 야곱에게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상식과 질서를 따라 나아간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이 오른손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요셉은 장자인 므낫세를 자신의 왼손에 잡고 야곱의 오른손쪽으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리고 둘째인 에브라임을 야곱의 왼손에 닿도록 자신의 오른손에 잡고 야곱에게로 나아갔습니다. 야곱 앞에 두 아들이 절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야곱은 손을 바로 뻗치지 않고 팔을 엇갈리게 하여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축복하였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늙어서 실수하는 것으로 알고 교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자기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19절). 그리고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습니다.

이것은 매우 경건한 순간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도 한 족속이 되어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19절)고 하였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을 장자로 축복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도 모르게 복종한 것입니다.

3. 어린 자를 향한 축복

아마 야곱은 자기가 하란으로 도망가기 전 자기 아버지로부터 받은 축복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니라”(창25:23). 이삭은 에서를 더 사랑했고 그에게 축복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택하셨음을 알게 됩니다. 야곱은 더 이상 하나님과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삭의 자손 중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야곱은 에서의 동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목자처럼 그를 인도하셨습니다. 요셉은 열한번째 아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에게 애굽의 치리권뿐 아니라 르우벤에게 돌아가야 했을 장자권을 주었습니다. 에브라임은 차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자를 들어 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시 지혜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것들을 택하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의 천한 것, 멸시 받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시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고전1:27-29).

✦ 순례자 컬럼 ✦

“하나님의 뜻”

예고도 기약도 없이 흘러가는 구름따라 사막의 땃약벌을 행군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시는 깊은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가장 감사해야 할 자리서 그들은 피곤에 지쳐 원망과 시비만을 하고 있었다. 애굽 땅에서 노예 신세로 이리저리 끌려만 다니던 그들이 민족적 일체감이나 단결이라는 말은 생소할 수 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서는 저들을 광야로 끌어내어 구름따라 이리저리 끌고 다니시며 집단체식 훈련을 통한 절대복종의 원리와 하나되는 비결을 터득케 하셨다. 이뜻을 깨닫지 못한 저들은 재수가 좋아서 구름이 나타난 줄 알고 그 래도 그 구름만은 벗어나지 않으려고 억지로 끌려다니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슬프게 한다.

오늘도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섭리해 주시건만 그 뜻을 깨닫지 못한 인생들이 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원망이나 하고 있지 않은지 자신을 살펴보자.

▶지상강좌

3·1운동과 기독교

이만열 (전도사, 청년부 지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소장)

3·1운동 당시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기독교인이 3·1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애국적인 전통에 연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올해 78회로 맞는 3·1절을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간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의 정신을 잘 조화시키고 본받아가야 할 것이다.

3·1운동은 1919년 3월 1일, 우리 민족이 일제의 지배 아래 있을 때 독립을 찾기 위하여 거족적으로 일으킨 국권회복운동이다. 이 민족운동에 당시 기독교인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하였다. 한국 기독교사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애국운동을 벌인 사례로 3·1운동이 자주 꼽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세계 제1차대전이 끝나고 '민족자결주의' 등의 새로운 사조가 확대되면서 과거 제국주의 국가들의 지배를 받던 민족들에 독립의 기운이 솟구치고 있었던 데다, 국내적으로는 고종의 인산이 겹쳐 민족적인 울분이 분출되려 하고 있었다. 무엇보다 일제가 우리나라를 강점한 지 9년동안 토지조사사업 등을 통해 생존의 근거인 토지를 빼앗아가는 등 민족적인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 3·1운동 발발의 주 원인이라 할 것이다. 1919년 2월 8일의 2·8독립선언에 이어 거족적인 3·1운동이 폭발한 데에는 이같은 국내외적인 배경을 무시할 수 없다.

3·1운동의 점화(點火)과정이나 전국적인 확대과정에서 주목되는 것은 종교인들과 종교기관들의 활약이다. 당시 종교인들이 없었다면 과연 그 운동이 불붙을 수 있었겠는가. 이 질문이 가능한 것은, 3·1운동의 불을 댕긴 '33인'이 모두 종교인을 대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어

가던 과정에서도 종교기관이나 종교계 학교의 역할이 지대하기 때문이다. 3·1운동에 참여한 종교기관 가운데서도 가장 뚜렷한 활동을 벌인 것이 기독교계다.

민족운동사에서 분수령적인 이정표를 세운 3·1운동에 기독교계가 적극 참여하였다. 한말 수용될 때부터 사회개혁적인 성격과 '반침략적'인 항일(抗日)민족주의 성격을 띄웠던 한국 기독교계는 독립협회운동 등에 깊이 관여하였고, 일제의 침략이 노골화하는 20세기 초에는 매국(賣國) 원흉들을 제거하는 데에 앞장섰던 것이다. 한말 스티븐스(須知分)를 총살한 장인환, 이등박문을 제거하는 데에 안중근(가톨릭 신자)에 협조한 우연준, 이완용을 제거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재명, 이런 애국 청년들은 모두 기독교인이었다. 따라서 기독교인이 3·1운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애국적인 전통에 연유하였다고 할 것이다.

기독교인의 3·1운동 참여는 우선 33인의 민족대표 중 16인이 기독교 대표라는 데서 보인다.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면 기독교인들의 역할은 더욱 두드러졌다. 운동 초기 그 주동세력이 뚜렷이 나타나는 311개 지역 중에서 기독교인이 78개 지역(25%)에서, 천도교인이 66개 지역에서 각각 주동적인 역할을 감당하였고, 42개 지역에서는 기독교인과 천도교인이 공동으로 이끌었다. 체포 투옥자의 경우도 기독교인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3

~4월의 피체포자 1만9천 여 명 중 기독교인은 3,373명으로 약 17%이며, 6월 30일 현재 투옥된 9,456명 중 기독교인은 2,033명으로 21%나 되었다. 이 통계에는 지방의 유력한 교회대표들이 체포자 혹은 투옥자 명단에서 누락되었다는 것을 상기한다면 그 수자는 더욱 증가할 것이다. 당시 25만 내외의 기독교인은, 2백만 내지 3백만으로 추산(손병희의 재판기록)되던 천도교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참여율을 보이고 있었다.

당시 기독교인들이 3·1운동에 그렇게 적극 참여한 것은 두가지 큰 이유가 있다. 하나는 무엇보다 나라를 찾으려는 민족의식적인 측면이다. 민족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민족을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운동에 깊이 동참했다. 또 하나는 신앙의 자유라는 측면이다. 강점 이후 일제는 105인 사건과 사립학교규칙 개정, 포교규칙의 제정 등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직·간접으로 탄압했다. 한국 기독교인들은 민족적인 분노에다 신앙적인 동기가 겹쳐져서 이 거국적인 민족운동에 앞장 섰던 것이다.

올해 78회로 맞는 3·1절을 맞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앞서 간 믿음의 선배들의 하나님 사랑과 민족 사랑의 정신을 잘 조화시키고 본받아가야 할 것이다.

▶순례 길에서

나는 왜 애국자가 못되나

김광신 (장로, 청년부 부장)

과거에는 우리나라에도 애국자가 많았었다. 예수를 믿지 않았어도 나라를 사랑했고 그것 때문에 가정도 포기하고 재산도 포기한 순국선열이 너무도 많았다. 더구나

별처럼 빛나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는 분들도 많지만 아직까지 그 공적과 흔적을 알 수가 없어서 묻혀진 애국자의 수는 더욱 많을 것이다. 지금 우리가 여기 이렇게 서 있게 된 이유가 그분들 때문인 것이 사실인데 만 불시대에 살고 있는 영광을 내 덕으로만 착각하고 살고 있다.

지금처럼 가짜 애국자가 많은 때도 드물 것이다. 마스크는 이 가짜 애국자의 얼굴과 말을 날마다 대서특필하고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울 뿐이다. 조금씩의 부도덕과 부정직은 절대로 잘못이 아니고 편법은 절대로 불법이 아니며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국민을 위한 것뿐이었다고 항변하고 있는 데도 누구 하나 그에게 돌을 던지거나 몰아세우지 못한다. 왜냐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이고 너도 나도 같이 모든 불의의 동창생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서 78주년 3.1절을 또 맞이하게 되었다. 유관순 누나의 죽음이 의미가 없게 되었고 33인의 독립선언이 빛을 바래게 되었다. 지금은 등불을 들고 애국자를 찾아 나서야 할 시간이다. 숨어있는 애국자, 나라를 가슴에 안을 수 있는 애국자를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헤매어야 할 시간이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 애국자가 발견되지 못하고 영문 밖에서 더 많이 찾아지는 사실이다. 불의에 항거하고 진리를 수호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서 더 많이 찾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조용하고 침묵하고 자기 껍질을 깨지 못하고 있으면서 율법의 중요성만 강조하고 있다.

한국이 사는 길은 교회가 애국자를 키우고 만들어서 배출하는 것 뿐이다. 3.1절 정신을 계승할 수 있는 애국자를 만들기로 다짐해 보는 오늘이 되자.

▶계절학교를 마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드리는 어린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유치부 겨울성경학교.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일이 예전처럼 수월하지가 않았다. 우선 요즘엔 아이들이 너무 바쁘다. 지금은 분명 성경학교를 ‘손꼽아서 기다리는’ 세대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교사들의 기도와 수고는 더 뜨겁고 무거워져야만 했다.

전도사님은 교사들에게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에게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 확실히 가르쳐 주자고 하셨다. 대부분 유치부 아이들은 탁아부에서 훈련을 받아서 암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편이지만 간혹 짧은 예배 시간도 집중을 잘 못하는

아이들이 있다. 교사들은 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과 의미를 알도록 인내하며 지도하려 했다.

특히 이번 성경학교에서는 4개의 학습센터를 세우고 코너마다 예배를 위한 훈련을 하였다. 기도훈련 코너, 주기도문과 사도신경을 외우는 코너, 그리고 예배 찬송을 바르게 부를 수 있도록 지도하는 코너 등에서 아이들은 지루하지 않게 예배의 방법을 배워나갔다.

신령한 것은 영으로라야 분별한다 하셨는데 바라옵기는, “어린 생명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영께서 어린이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도우소서!”

이선영(유치부 교사)

고등부

· 이번 수련회에서 감사한 것은 기도로 준비한 것이다.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무릎 꿇고 기도할 때 눈물이 나지 않았지만 이번 수련회에서 느낀 것은 눈물이 없더라도 하나님께 내 마음을 진정으로 드리고 열어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역시 중요한 것은 ‘기도’다. 하나님과의 은밀한 대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요 복이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린다. 고등부를 더 사랑하게 될 것 같다.

- 신범석-

· 말라기 강해를 들으며 십일조도 못드리고 예배도 정성껏 못 드린 것에 대해 회개하게 되었고 정말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다. 즐겁고 신나는 시간도 잊을 수 없지만 부흥회와 기도 시간의 뜨거움은 내 생활을 거둬나기 하기에 충분했다. 이제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 말씀으로 무장한 삶을 살아야지.

- 서현아-

· 이들은 짧았지만 새벽 5시부터 시작한 하루는 참으로 길었다. 하지만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 잠이 미쳐 깨지 않아 정신을 못차리

던 새벽기도회부터 열정적인 저녁집회까지 내겐 새롭고 감동적이며 영적인 경험이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에 있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맛보아 알았다.

- 김현아-

· 이번 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예민하게 느끼며 수련회에 참석하기는 처음이었다. 말씀이 시종일관 내게 주시는 것 같아 몸둘 바를 몰랐다. 하나님께서는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 원하는 소원을 내게 주셨고 내 마음과 입을 열어 진정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게 해주셨다.

- 하영인-

· 짧게만 느껴졌던 수련회였다. 성극연습으로 설렘 없었던 것도 한 이유였으나 알차기 때문인 것 같다. 여러 목사님들이 주신 주옥같은 말씀들과 기발한 아이디어가 번뜩인 성극 시간을 잊지 못할 것 같다.

- 유수진-



겨울이었습니.

올마나(?) 기다렸던 수련회였던지요!

수도 없이 기도했습니다.

련습도 정말 많이 했더했습니다.

회비를 안낼 나쁜 생각도 했었지만

너무 양심에 찔리길래 그냥 냅했습니다.

무지무지 즐겁고 유익했던 시간들...

좋은 기억들만 자리할 것 같네요.

아주 좋았어요!!!

-곽정임-

■ 목회자동정 ■

- * 이종운 목사는 미국시카고 지역 목회자세미나 인도 차 3일(월) 출국하여 8일(토)에 귀국한다.
- * 김영한 목사(장년부 지도)는 건강이 회복되어 오늘(2일)부터 장년부 강의를 다시 시작한다. 오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간증을 한다.
- * 3월부터 대학부는 임진태 목사, 5·6교구는 이순환 목사, 전도위원회는 이성득 목사가 각각 지도한다.

■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 신청 접수 ■

- 제 11학기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1997년 2월 10일(월) ~ 3월 24일(월)
 - 제출서류 / 본원 소정양식
 - 등록금 / 한 학기(10주)에 만원
 - 신청서 접수 및 수강 안내 / 한국교회강신연구원
- 서초구 반포동 737-3 ☎ 517-7651 ~ 5 FAX, 512-1225)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 | | | |
|-------------------------|-----------|------------------------|
| 기독교방송(HLKY 837KHz) | 「성서강해」 |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 춘천기독교방송(HLDC 93.7MHz) | 「성서강해」 |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 국동방송(HLKK 1188KHz) | 「생명은 빛으로」 |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 대전국동방송(HLAD FM 93.3MHz) | 「늘푸른 초장」 | 주일 오후 10시 ~ 10시 45분 |
| 아세아방송(HLAZ 1566KHz) | 「라디오 강단」 |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
| | 「새벽의 강단」 |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시순절 기간동안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2. 감사와 기대로 새 봄을 맞이할 수 있도록
3. 교회행사를 위하여
4. 제 11학기 목회자신학세미나를 위해
5.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 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 요 기도 회		오후 9시
새 벽 기도 회		매 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